

함·즐·함·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5년 주님의교회 표어



500
2025.5.18.
500호 특집

오늘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500호 특집 칼럼 | 5 | 함즐함울 소감과 축하인사 | 10-11 | 목사안수소감 |
| 3 | 500호 특집 행복을 묻다 | 6-9 | 무지개잔치 | 11 | 유아세례자 기도제목 |
| 4 | 500호 축하메세지 | 10 | 교사일기 | 12 | 공동체 소식 |

<창간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
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5)

96교회 표어

“기억하라”

(전 12:1)

발행인: 남녀연합선교회 (본 선교지는 두달마다 발행합니다) 1996년 8월



이 재 철(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함·즐·함·울

어느덧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마침 남녀 선교회에서
교인들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정말 적절한 나눔으로 봉사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아무췌록 정성스럽게 엮어지는 이 지면들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함
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즐·함·울” 창간호에 바라는 작은 소망

이 재 원 장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이 서
로 돕고 사랑하며 각자의 맡은
분량과 분수와 재능대로 일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어언 8주년이
지나고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가족처럼 한데 모여 오순도
순 시작되어진 작은 개척교회가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듯 많은 성도들
로 가득차게 되어 이제는 말로
만으로는 부족하여 지면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고 주님께 대한 믿
음이 한층 더 두터워진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성
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건립하기
에 힘썼고 전지적인 사업보다
소리없이 뒤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구제에 힘쓰는 것
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
라 생각해온 우리 교회가 하나
님의 새로운 뜻을 받들어 오늘

날 선교차원에서 정신여고의 강
당을 건립하고자 하는데까지 발
전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흔치 않은 일이라 착공
에서부터 완공까지에는 학교당
국 기타 관계자들과의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지혜와 격려, 젊은
이들의 새로운 지식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과거에는 이 사업
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의 새로
운 관심과 이해로 우리가 다함
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듯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때만 하
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
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남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들만 고집하다
가 흔히 작고 사소한 일들을 소
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
다. 위대한 인물뒤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준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법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남

의 의견에 귀기울일줄 아는 사
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큰
뜻을 알고 받드는 사람일 것입
니다. 마음속의 자(尺)를 만들
어 자신들의 자로 서로를 재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리석음
을 범하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
를 이해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
하여 우리를 마음속의 담을 허
물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
람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함즐함
울, 지를 통하여 전해졌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즐함울, 발간을 계기로 서로
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
려 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을 주신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간의 관계회복을 갖게 하시
고 특히 교회에서 주위와의 관
계를 소홀히하고 하나님만을 바
라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
원해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500번의 걸음

1996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품고 시작된 함즐함울. 그 첫걸음은 작지만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호 한 호를 이어온 500번의 걸음 속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 눈물, 기도, 웃음, 그리고 사랑이 담겼습니다. 이 신문은 단지 소식을 전하는 종이를 넘어,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실제로 주님의교회 25년사를 발간할 때 함즐함울은 중요한 역사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500호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음에 이어질 600호, 700호를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도 함즐함울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의 진심을 담아내는 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즐함울 500호 특집
함즐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 ‘함즐함울’ 500호를 맞이하며

1996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된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이 어느덧 5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단순한 교회 소식지 이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난 30여년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고, 신앙의 길을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의 장이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주님의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거울이었습니다.

함즐함울

‘함즐함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속에 깊이 새기며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날마다 답해 왔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에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교회,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담겨 있습니다. ‘함즐함울’은 바로 이 교회의 실체가 구체적인 이야기와 고민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돕는 창이었습니다. 서로의 기쁨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눈물을 자신의 일처럼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온 이 이름은, 곧 주님의교회의 마음이며 신앙이며 삶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고백이 바로 교회의 ‘네 가지 원칙’은 ‘함즐함울’이 지난 30년간 담아낸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는 세상에 응답(50:50)

‘함즐함울’은 늘 교회 바깥의 아픔에도 민감했습니다. 우리 안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거리의 노숙인, 재난의 피해자, 전쟁과 가난 속에 놓인 이웃들, 복음의 빛이 닿지 않은 선교지까지도 이 지면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주님의교회가 단지 설교나 이론으로만 ‘이웃 사랑’을 말하지 않고, 교회 재정의 절반을 외부의 고통과 선교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감과 연대를 실제로 실천해 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함즐함울’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호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누구도 높이지 않는 공동체의 기쁨(무기명 헌금)

공동체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와 경쟁, 평가와 위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교회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도록 한 이유는, 예배조차도 누군가의 헌신이 자랑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함즐함울’이 기록해온 수많은 기쁨의 이야기 속에는 ‘누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는 공동체적 고백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김을 포장하기보다는 은밀히 감추는 복음의 원리가 이 신문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함즐함울’은 누구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빛났던 기록의 역사였습니다.

이동하며 사는 성막의 산양(건물 무소유)

주님의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벽 안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라는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함즐함울’이 걸어온 길과 닮아 있습니다. 이 신문은 언제나 고정된 형식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와 삶의 흐름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지면’보다 ‘사람’이, ‘공간’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삶처럼, ‘함즐함울’도 삶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문은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모두가 책임지는 교회(교역자 항존직 임기제)

‘함즐함울’은 교역자나 특정 지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가 함께 책임지는 교회를 드러내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임기제를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섬김을 권력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사명자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곧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평등한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함즐함울’은 한 사람의 칼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고백으로 채워졌고, 전문가가 아닌 성도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임을 보여주는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500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함즐함울’ 500호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한 귀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여전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은 늘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며 진화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함즐함울’은 더욱 많은 이들의 더 넓은 이야기와 더 깊은 나눔으로 삶을 담아낼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포착하고, 더 많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일상 속에서 선명히 드러내는 증언의 장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담고, 고통받는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우리 안의 회개와 결단을 고백하는 지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이 신문을 이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증언이 되며, 그 증언이 또 다른 이의 믿음이 되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함즐함울’은 우리 교회의 얼굴이며, 심장이며, 다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한, 이 신문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자도생으로 흘러갈수록, 교회는 더욱 ‘함께’라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대를 향해 ‘함즐함울’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 함즐함울 편집장

함줄함울 500호 특집
세대가 함께 찾는 신앙 공동체

행복을 묻다

‘함줄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기쁨도 눈물도 함께 나누며 걸어진 ‘함줄함울’이 어느덧 500호를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기념하며, 우리는 함께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세대별로 느끼는 ‘행복’에 대해 들어보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한 삶,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레 적어주신 한 줄, 두 줄의 짧은 고백 속에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이라는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답아낸 ‘행복’의 고백

중고등학생이 응답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재밌게 사는 것’, ‘웃을 수 있는 감정’, ‘걱정 없이 지내는 하루’를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본 행복은 그 자체로 예배 같았습니다. ‘웃음’과 ‘재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을 고백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즐거움을 신앙 안에서 찾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년 세대(20~30대)에서의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작고 소소한 기쁨’, ‘걱정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믿음’이라 고백합니다. 청년들의 언어는 바쁜 현실과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한 현실을 살아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이 주는 의미와 안정을 불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균형과 쉼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장년 세대(40~60대)에서는 ‘가족의 평안’,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연합’, ‘믿음을 나눌 친구들’, ‘예배 후 국수 한 그릇의 기쁨’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삶의 굴곡을 지나오며 얻은 지혜처럼, 행복은 함께 나누는 삶에 있다는 구체적이고 소박한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식탁, 나누는 기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이 곧 감사의 이유가 되는 삶**, 그것이 장년 세대들의 행복이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세대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족을 위하는 사랑’, ‘신실한 믿음의 여정’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짧은 한 줄에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신실함과 깊은 감사와 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신실한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며, **그 자체로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우리가 고백하는 행복

행복은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세상은 그것을 수치화하고 순위를 매기길 좋아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는 소득,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137개국 중 57위로, 경제력에 비해 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광고 속에서 말하는 행복은 흔히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남보다 잘났는가?’로 요약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성취, 경제력, 환경, 조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 드러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은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은 ‘주님과의 동행’, ‘예배’, ‘공동체’, ‘평안’,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걱정이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마음”을, 또 다른 이는 “예배 후 국수를 함께 먹고 돌아가는 길”을 자신의 행복이라 고백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도, 대단한 성취도 없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

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한 답변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시선, 다른 가치, 다른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더 많이 갖는 것’이라면, 우리의 고백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같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더 자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배경을 뛰어넘어 식탁을 나누고, 찬양을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또한, 작고 **꾸준한 섬김과 나눔**이 우리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고 중보하며, 감사의 제목을 함께 축복해 주는 공동체, 작은 일에 감탄하고, 사소한 기쁨도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은 더 깊어지고 기쁨은 더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QT 나눔방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그저 자신의 묵상 글을 올리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묵상 나눔에 누군가 응답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에게도 있었던 ‘오늘 하루 행복했던 순간들’, ‘말씀 묵상 중 떠오른 생각’, ‘이 주간의 감사 제목’ 등의 **자신의 감사와 은혜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역동하는 신앙의 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고, 격려가 오가는 그 공간 속에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옆에서 걸어주는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기도해 주고, 함께 걷는 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500호라는 긴 시간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1호, 또 다른 1000호를 향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세대별 행복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고백을 삶으로 드러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행복한 삶, 행복한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순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최민기 집사 / 함줄함울

함즐함울 500호 특집
축하메시지

주님의교회의 얼굴로 역할을 감당하는 <함즐함울>

함즐함울 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어진 교회를 세우고자는 "발칙한^^" 꿈을 꾸며 시작된 주님의교회의 얼굴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에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롬12:15) 메신저로 우리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즐함울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김화수 담임목사

함즐함울 500호 특집
축하메시지

창간호에서 500호까지 29년

1996년 8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29년만에 500호를 발간함에 있어 무한한 축하를 올립니다.

창간호 첫 지면에 당시 이재철 담임목사께서 발간사의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롬 12:15)”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신 말씀과 고 이재원 장로님의 “함즐함울 창간호에 바라는 작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첫 지면을 장식하며 소박한 출발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500호

를 출간한다는 소식에 무한한 기쁨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간호 발행 시 발행인 당시 김화수 부목사, 편집인 조원호, 천경우 집사 3명만으로 A4 용지 4면에 흑백으로 격월로 출간하였는데 요즘에는 발전하여 A3용지에 COLOR 12면으로 3주마다 출간하는 발전된 모습에 편집부 모든 분들께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즐함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원호 장로

함즐함울 500호 특집
축하메시지

함즐함울과 함께한 22년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나가 버린 것과 오지 않는 것에 대해 연연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시간인지를 생각해봅니다.

<함즐함울> 500호를 맞이할 주일 아침에 교회 로비에 놓여질 <함즐함울> 500호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듬해에 <함즐함울> 창간호를 보며 “함즐함울”어쩔 저렇게 제목을 잘 만들었나 하며 신문을 보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2004년부터 사역을 시작하며 이제는 20년이 지나 <함즐함울> 500호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추어이지만 신문 편집을 하기 전에 혹 내가 쓴 글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를, 이 글이 <함즐함울>에 들어가도 되는 글인지를, 교우

님이 부탁한 글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고민했던 날들. 게재되는 글들이 무의미한 글이 많다고 하여 특집기사를 만든다고 강원도 “예수원”을 찾아가 기사를 만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사역부서를 소개한다고 함즐함울팀과 늦은 주일 저녁에 장례위로예배 취재를 위해서 군산 장례식장에 찾아갔던 일들, <함즐함울> 기사가 볼 것이 없는데 왜 계속 만드냐고 핀잔을 받고 속상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22년이었습니다.

<함즐함울> 사역을 하며 같이 한 담당 목사님들과 사역자 한분 한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함께 즐기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함께한 시간들 이제는 <함즐함울>이 성숙한 주님의교회 귀한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형섭 장로 / 함즐함울

함즐함울 500호 특집
축하메시지

나무와 대리석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마다 거대한 박물관이 있고, 그곳엔 숨겨진 좋은 예술가들이 만든 대리석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은 그 자체가 결이 곱고 아름다울뿐더러, 썩지도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파괴하지 않는 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러 나라에서는 그들의 신을 대리석과 같은 돌에 새겼습니다.

대리석에 비하면 나무는 대단히 연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어린 뿌리를 내리고 작은 순을 올리기 시작할 때에는 흔히 새나 동물의 먹이가 되고,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사람들의 딸감이 되거나 태풍에 가지가 꺾여 상처가 납니다. 봄이면 새싹을 내어 여름에 이르면 제법 풍성해 보이지만 가을에는 낙엽을 떨구어 삭풍 부는 겨울에는 오�히려 맨몸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나무일까요, 대리석일까요? 많은 교회가 썩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드물게 썩지 않은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썩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우아하지만 단단하게 굳어 생명이 없는 대리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지요. 썩지 않기 위해 도리어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나무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온몸으로 맞습니다. 햇볕이 쬐면 그쪽으로 고개를 들고, 가뭄이 들면 땅 깊은 곳으로 집요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상처가 난 곳에서는 새 가지가 돋아납니다. 그렇게 겨울과 여름을 지내다 보면 나무는 어느결에 듅직하게 자라 하늘을 덮습니다. 때가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어 다른 나무를 키웁니다. 그것이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아한 대리석보다 생명이 있는 나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동치가 굵어져,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고 그 열매는 허기진 이들의 소박한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다른 곳에도 씨를 흩뿌려 곳곳에 생명을 자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온 <함즐함울> 500호를 축하하며, 이 어려운 일에 헌신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경식 안수집사 / 전 함즐함울 편집장

함즐함울 500호 특집
내가 기억하는 함즐함울

내가 기억하는 함즐함울

500호를 맞은 함즐함울,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담은 기록입니다. 그 기록 속에서 각자의 마음에 남은 한 편의 기사는 곧 그 시절의 믿음과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기억을 함께 나누며, 함즐함울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청소년숄

-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 가정에서의 이야기가 기사로 연재되어 좋았다.
- 24년 성탄절 행사 -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 어와나 퀴즈대회 나간 것이 가사로 나왔을 때

20대

- 각 부서의 수련회와 선교활동 후기 - 수련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사진이 나와서 인상깊었습니다.

30대

- 414호 청소년숄 순식탁 이야기 - 주님의교회 다음세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각 공동체의 소식을 담은 부분 - 다른 부서의 소식들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 노아에 관한 말씀 -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세례입교예식 소감문 - 제일 진솔한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 청년부 수련회 후기 -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수련회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 교사일기, 국수 및 커피봉사 재개 과정, 신춘문예 - 여러 손길들과 고민들, 그 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고 나니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자세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요!
- 청년들이 썼던 글과 후기 -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40대

- 일단 제목! - 늘 곱씹게 됩니다.
- 유유택청 수련회 후기가 늘 은혜였고 항상 찾아보는 기사입니다. - 유유택청에 자녀가 있기도 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 설교 강해 - 신학적 설명, 성경 설명 등이 좋아요.
- 기도하는 방법(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고 ‘드립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쉽게 설명해주었던 내용 - 기도하는 방법을 성경적 의미로 깨닫게 해주어서
- 수련회 및 비전트립 소감문 등 - 타 수련회에 대한 교인들의 소감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 교사일기 - 교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느낌들이 궁금
- 선교 인터뷰 또는 간증 - 구체적인 예시
- 아이들이 전시했던 것이나 공연했던 것들 -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늘 아이들의 성장과 작품들은 늘 기억에 남네요

50대

- 선교와 구제 현장 -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교회사용설명서’시리즈 기사들 - 교회에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사역들이 이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교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 성지순례 참가자의 글 - 솔직하고 생생함
- 선교내용, 간증, 피택자 소감 등 - 함즐함울 뜻에 가장 부합
- 교회 용어 설명(찰나, 명복 등) -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쓰는 불교용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헛갈리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걸 다뤄줘서 좋았습니다.
- 성극팀 기사 - 내가 참가한 이야기라
- 북한선교이야기 - 통일이 되어야하므로 관심
- 기도하는 방법(기도할 때 성경말씀을 첫마디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 - 올바른 기도법과 내용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내용

60대

- 진솔한 신앙간증 내용 - 교회에서의 개인 삶
-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 예수님의 삶이셨기에
-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꼽을 수 없지만 매번 공감하는 글이 많습니다. - 대체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 사역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체험 -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 체험
- 교우들의 간증 - 내 신앙생활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 단기선교기사-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분들에 대한 감사와 대리만족(?)

70대 이상

- 목사님의 신앙간증 - 신앙의 깊이를 더합니다.
- 교회 사역부서의 사업 소개와 실적 등에 관한 기사 - 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음.

축하메시지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고민하고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함즐함울을 통해 교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친밀해짐에 감사합니다.
- 제목처럼 ‘함즐함울’ 할 수 있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참으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 함즐함울이 저에게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몰랐던 교회 곳곳의 소식 정보를 전해주는 것. 두번째는 주님의교회가 자랑스러운 기독교 문화와 전통을 세워가는데 기여해왔고 기여할 것이라는 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시는 함즐함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대다수의 평신도들에게 주님의교회 곳곳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세요.
- 점점 밝아지고 젊어지는 것 같아 기쁩니다.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으니 힘내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주님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크리스천 모두를 위한 함즐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 500호까지 오는 동안 편집으로 수고해주신 함즐함울 담당자님들과 함께 함즐함울을 채워온 모든 주님의교회 공동체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비와이의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우리의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이 모든건 주님의 이야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
미션 메신저스

일곱 가지 빛깔의 무지개잔치

2025년 5월 6일 오전 10시, 아이들의 목소리, 모든 성도님들과 봉사자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님의교회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전교인 대상으로 마련된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교회를 넘어 지역의 대표 잔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잔치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유아숲의 어린이부터 교회의 모든 성도들까지, 총 6개 존, 375명 봉사자의 헌신이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의 일곱 가지 빛깔을 소개합니다!

빨강 빛깔 - 미션! 메신저스

올해 무지개잔치는 미션 메신저스(Mission Messengers, 롬 10:15)이라는 주제로 주님의교회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3040 젊은부부 세대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더 나아가 이들을 교회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가도록 지역을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황 빛깔 - 플레이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를 누리기 위해 입장시간 30분 전부터 수많은 아이들과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어린이 약 1000명, 성인 약 1700명). 동물 캐릭터 친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부스에서 입장팔찌와 무지개잔치 브로슈어, 무료쿠폰을 받은 아이들은 에어바운스에서 뛰놀고, 바이킹과 우주선, 유로번지, 전동 기차, 키즈라이더를 비롯한 여러 놀이기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날씨를 예비해 두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안수집사 / 남선교회와 청년부의 귀한 섬김으로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게 플레이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 앞에서 하나되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넘쳤으며, 부모님은 추억의 두더지게임 앞에서, 아이들은 농구게임과 해머치기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랑 빛깔 - 패밀리존

올해 패밀리존은 다양한 놀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로 가득했습니다. 미취학 어린이들과 취학어린이를 대상으로 준비된 패밀리존은 꿀벌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수박부채 만들기, 여름비치백 만들기, 키팅 만들기, 가방 꾸미기, 팔찌 만들기, 선케쳐 만들기, 풍선, 민속놀이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패밀리존 부스를 찾는 부모와 자녀의 발길이 잔치 내내 이어지며, 특히 민속놀이는 전 세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코너였습니다.

초록 빛깔 - 푸드존

무지개잔치에는 맛있는 먹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 행사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된 푸드존의 맛있는 냄새로 잔치의 흥을 더했습니다. 한쪽에는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순대와 찐빵과 국밥은 잔치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배고픈 배를 든든히 채워

주었으며,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마른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핫바와 컵밥은 무지개잔치의 또 다른 별미였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커피를 손에 든 어른들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팝콘을 양손에 쥐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푸드트럭(타코야끼, 쌀핫도그, 츄러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가게 실천한 잔치였습니다. 푸집한 먹거리 뒤에는 1~6여전도회와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준비로, 설거지 봉사 등으로 함께 한 수많은 봉사자들의 귀한 섬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파랑 빛깔 - 가스펠 버블쇼

이번 무지개잔치는 가스펠 버블쇼가 오후 1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진행에 따라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닮아 함박웃음을 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색 빛깔 - 교육부스와 가정사역원 존

1층 로비에 설치된 교육부스와 가정사역원 존에는 주님의교회 교육사역과 가정사역을 온 교회와 지역사회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는 주님의교회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라 빛깔 -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되게 하실 하나님

전교인 무지개잔치를 위해 등록부스로, 해피존 운영으로, 주차봉사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의료지원으로, 청소 및 정리로, 여러 시설 점검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수많은 분들의 헌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기상예보 걱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날씨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지개잔치 하루만큼은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잔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신 대회장 담임목사님, 위원장 박기운 장로님, 기획팀으로 올 초부터 함께 동역한 김미성 권사님, 윤상현 안수집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26년 무지개잔치에도 주님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세우시고 하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총괄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 봉사자 명단

구획	팀장	내용	대상	담당부서	봉사인원	오전 봉사자 10:00-12:30	오후 봉사자 12:30-15:00
계	-	-	-	-	380		
플레이존	윤상현	기차첼린지바운스	어린이	안수집사 / 남선교회	2	박범석	김성흠
		에어바운스(중형1)			2	이정혁	한재희
		에어바운스(중형2)			2	박경준	홍완식
		에어바운스(중형3)			2	이성균	신성철
		슬라이딩 바운스			2	김길동	이승주
		어린이바이킹1			2	이신형	이성호
		어린이바이킹2			2	양성호	전선재
		다람쥐통			2	박재민	임성훈
		유로번지		청년부/남선교회	2	허인범	김종철
		우주선비행선	미취학 어린이	청년부	2	정예은	정예은
		영아용 키즈라이더(4대)		청소년숲	4	박형란 정재영	박정민 이재홍
		영아용 에어바운스(실내)		유아숲	4	남초롱 추미선	안정현 이영선
		영아용 두더지잡기(실내)			3	오교현 황혜영	설연우
		전동기차	전교인	초등2부	2	김광희	김순희
		두더지			청소년숲	주찬양 정세민 함혜련	김예현 박유진 오성민
		해머					
		농구대					
		포토존					
교육부스존	강요한	유유청창+가정사역원	전교인	사역자	2	이수진	오성민
패밀리존	이윤경	꿀벌바람개비 만들기	전교인	영아/유아숲1부	4	김미리 송준영 허소정	신현정
		페이스페인팅		유아부	7	송진경 오점덕 이선민 이선유	박영은 엄소연 조규완
		수박부채 만들기		유치부	2	박소은	김성일
		어름비치백 만들기		유치부	2	박예은 장명희	최원정
		키링만들기		아기부/커비스	4	우지민 허가화	김오정 남초롱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가방 꾸미기)		유년부	7	권택정 송영민 임미정 임정욱	강숙향 한경은 홍지수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 (팔찌 만들기)		초등1부	8	권혜린 목윤영 양해은 이현숙 최명철	권혜린 김진의 최명철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 (키링 만들기)		소년부	7	김선우 정대환 홍진희	김상아 김소진 김소현 유재환
		세상에 하나뿐인 전케쳐 (전케쳐 만들기)		EM	8	김영인 이영수 이윤정 이진명 앙수미	김재울 김지은 조영은
		세상에 하나뿐인 풍선 (풍선 가져가기)		어와나	13	김혜령 노형준 송영욱 유지연 정지영 홍주희	강서희 김세진 김혜령 조영은 윤진영 최민희 최현숙
		민속놀이		어와나	12	김윤정 김지나 노형준 박지영 송영주 임성훈 최윤희	이정우 이진원 정경란 최윤희 홍이랑
공연존	이상훈	가스펠 버블쇼	전교인	전교인	2	-	신다윗 이영원
푸드존	박기운	푸드트럭1(타코야끼)	전교인	소년1부	2	최영미	박성일
		푸드트럭2(샐러드그)		유년1부	4	노정민 김경희	노정민 이현준
		푸드트럭3(츄러스)		초등2부	2	윤순영	김상분
		아이스크림		유년2부	3	윤정현	김예서 이지윤
		음료		유년2부	4	성순헌 이경란	김현주 송태헌
		팝콘1		청소년숲	5	김옥희 신미향 이경희	송숙희 정재영
		팝콘2		청소년숲	6	이미경 정희봉 홍기현	수용관 안경희 한수원
		소프트아이스크림1		청소년숲	6	고재연 김현미 유지은 양봉욱	박재원 조은정
		소프트아이스크림2		청소년숲	6	김계원 박유진 서민준 성낙훈	이신형 홍승길
		햇바		1여전도회	21	길금옥 권석자 권순미 김영조 김운선 김점순 김혜숙 나경희 박미년 박미숙 박순실 박형자 배홍자 석경숙 양지우 은영희 유임순 이혜숙 조혜조 최정숙 한신혜	
		국밥		2여전도회	35	고유자 권영수 권혁주 김경숙 김명자 김미선 김재민 김진희 배영자 배윤선 박영찬 박준명 박준영 박진현 서옥자 송성열 원인숙 유순의 유윤실 윤석춘 윤옥남 이갑숙 이성호 이은숙 이현숙 장혜숙 조은화 조정숙 지형민 천옥현 최금주 최정희 허건숙 홍계옥	
		떡볶이		3여전도회	30	김성경 김신정 김재실 남궁옥귀 노미리 목기숙 박수희 박정은 배애리 신민숙 오성자 유소자 유혜경 이선옥 이숙희 이영숙 이영숙D 임연옥 임현주 장계희 장혜정 전기숙 정정숙 조복환 조영미 최민숙 최성이 최영순 최재경	
		커피		4여전도회	28	고경임 고영선 권진영 김미선 김화선 노수희 독고의선 박선주 배정애 서재화 송정애 신말희 안남희 이윤성 이왕희 이영애 이은우 유종숙 윤 정 정하선 진경숙 최경희 최연호 최종희 천정희 황 경	
		순대찜빵		5여전도회	27	강민영 계영주 김선미 김은숙 김지선 김주현 남정임 박상순 박성순 박성연 박성연B 박소현 백민영 양혜림 안금주 이민영 이주영 이지연 이혜영 임성은 정애란 정유진 정인숙 정희선 전금단 차민주 최은희	
		컵밥		6여전도회	20	김수영 김정영 김혜령 신정미 송현지 여윤정 유윤정 윤병주 이선우 이은경 장윤정 전언경 정남영 최원선 최영미 최윤정 탁윤주 허가화 현다경 홍이랑	
		주방 지원		지원자	9	김상진 김종석 박준명 박영찬 박진현 손준웅 이성호 이재홍 지형민	
쿠폰판매	김미성	쿠폰판매	전교인	유소년숲 회계	4	원은영 이춘희 정기순 조경란	
		쿠폰마감	전교인	회계팀	7	김미성 김주현 목기숙 배애리 정정숙 조희숙 임연옥	
등록부스	이상훈	등록(무료쿠폰)	미취학어린이	유아숲임원	5	박수희 이선옥 이숙희 이왕희	어진원
			취학어린이	유소년숲임원	8	김선희 김천식 윤경자 이정금 임광희 송태헌 조민호	이승훈
해피존	이상훈	해피권 추첨	미취학어린이	유아숲임원	1	조은경	
			취학어린이	유소년숲임원	1	정유석	
캐릭터	이상훈	캐릭터	전교인	교역자	3	박정민 오성민 정지명	
주차	박기운	주차 안내	전교인	봉사분과	7	김명숙 김성배 박준엽 원종철 유신식 이성호 정상기	
의료	박기운	의료지원	전교인	의료봉사회	6	김성희 김아리 박준명 이광우 이승호 최창환	
전기 가스 시설	박기운	전기 및 가스 설치, 행사후 정리	-	사무국	13	김정자 박귀례 박태웅 서병운 성준용 송용미 신만규 신희수 이영신 이종분 윤성태 조희숙 하태준	



무지개잔치



-완전 재미있는 것도 새로
나와서 새로웠어요.
-돌아가가 무한한 것도 많았
단,어린이날 즐겁게
태라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네요
추억거리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अच्छ고 재밌었어요^^
내년에는 더 커서
어니,오빠들이랑 더 재밌게
놀러올게요~
준비해주신분 너무너무 x10000
감사합니다 ^^*

장 근처와 장개 뜰쪽에
맛있는 간식 잘 먹고
감사다. 점심때와 같이 왔는데
여간 재밌게 있었단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등심이 가득한
앨리스의 나라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진!
극장 너무 좋았어요!!
평생한 잔치 감사합니다.

별종류에서 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사랑의 하트
준비해주신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히 먹거리와
편의를 대하도 편하
편안하게 잘 보내
해주셨어요

음식이 쪼끔 짜파기
해서 있어서 정말로 신이
다.그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그해년동안
감사합니다

준비해주신분 너무 애썼어요.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요점도 함께 감상하셔요.
지식다양성있게
신기한 다양한 보라다서
감사합니다.이렇게도 많이
아나서 유익한 것 많았어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u)

재미있고 음식이 맛있다.
관람에 하고와서
좋다(아이들)

바이킹은 무서운
거름 조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2025 무지개 잔치
최고!!
날씨도,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의 예쁜
미소를 가득 보고 갑니다~

명불허전!
최고의 전교인 축제 무지개잔치
올해는 날씨가 최고예요~
ps.다음해는 원래처럼 원해요!!

좋은 날씨 덕분에
하루종일 감사드리고
매년 너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너무재미있었고 너무 행복했다.
우리교회보다 컸다 다 너무 친절
하시다
♡♡♡♡♡

이렇게 좋고 좋은 축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 갑니다~

작년 보다 다양한 시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재미있었
어요.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
아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얼굴이 행복이
가득 보이네요~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서는
무지개잔치.
행복만 있길..

재미있고 맛있는게
많아서 좋아요!
♡♡♡♡♡

친구랑 가족이랑
너무 재밌게 놀아서
보람있다. 내년에도
계속 여련이고 싶다.

많은사람에서 보고 많은것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6학년, 3학년 4학년
도 명파시 아이에게 해줘?
어린아이도 눈물 흘렸것 같아 개성
감사합니다. 개성 어린이날
세상 행복하것 같아 더 감사
감사합니다. M-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고
포포로 있어서 사진
적었습니다. 주인의 형제와
함께 하는 잔치로 아주
즐거웠습니다.

무해도 즐거웠어요!!
행복한 휴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방문해요~ 즐거운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잔치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너무 앞잔행사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로,돌아와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날씨가 대행에도 좋아서
더욱 잘 즐길수 있었네요!
인형단 손 사격자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ㅎ 모두 고생많으셨어요~
내년에도 무지개 축제로 ~!~!

간식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랑 오기
좋아요< 강추!

시간이 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음!
전날부터는 대행도 재밌게
놀이 감사다!

매년 너무 재미있고 완전 좋
같은 친구와 오는데 친구와
취미 무지개 잔치가 돼서 좋다.



목사안수소감

곤고한 자와 함께 하는 목회자

살롬! 목양실에서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서로 사역하고 있는 이왕현입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정사역원 아름다운 부모학교와 새가족부에서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많은 기도와 관심, 축복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임하고 지금까지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 많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을 말하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의 표본을 그분들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안수를 받고 어떤 목사가 될 것인지 고민할 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와 함께 하는 진실한 목회자, 거짓이 없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사역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안수를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왕현 목사 / 목양실, 가정사역원, 새가족부



목사안수소감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처럼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일까 고민하던 시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부족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실 때 통로로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달려온 지 1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교회의 사랑으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처럼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을 더욱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수희 목사 / 청년부

교사일기
영아부

믿음의 씨앗, 아이들과 함께 자라다

2014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에서 종교는 제게 큰 의미가 없었고,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 손을 잡고 처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 어딘가에서 잔잔한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되었지만, 저의 신앙은 여전히 겉돌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만 겨우 참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둘째 아이의 영아부 입학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영아부 선생님들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 무릎보다 선생님들 무릎에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한 것이 영아부 교사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부담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영아부는 제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저에게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와 맑은 눈빛,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당당히 외치는 그 고백 앞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공과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저였다면 상상하지 못할 변화였습니다. 영아부 교사로 섬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주

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체력적으로 지치고, 아이들 통제가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아이들의 한마디 말, 한 곡의 찬양, ‘아멘’이라는 한 마디였습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나 어린이 주일과 같은 큰 행사 때는 연습하며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지금도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 깊이가 따뜻해집니다.



만약 제가 영아부 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교회의 문턱에서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제 신앙이 자라나고 있고, 그 시작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르침’이 아닌 ‘함께 자람’의 시간들이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교사로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모든 부족함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으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차호 안수집사 / 영아부

목사안수소감

낮설음을 벗 삼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평남노회 봄노회에서 목사안수 받은 김세연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공동체 청년들이 “목사님 목사님” 불러줄 때마다 아직까지도 그 목사라는 직함이 낯설기만 합니다. 어쩌면 이 낯설음은 아직 목사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이 바르게 서지 못함에서 오는 불편함 혹은 죄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목사로서의 올바른 성품과 자질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사의 올바른 정체성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낯설음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해야 하는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선, 이 낯설음이 이 길의 끝까지 함께 하여야 할 벗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이 낯설음을 벗 삼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목사 / 청년부



유아세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인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함글함글

김주호 (부: 김세환, 모: 김한나)

건강하게 자라고 형제간에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주호가 되게 하소서.

박지안 (부: 박상현, 모: 김명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육이 강건한 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지안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태이 (부: 김종찬, 모: 이소정)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아이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아버지에게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다을 (부: 이용구, 모: 김수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어디서나 사랑받고 밝게 빛나며 그 사랑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하루 (부: 김세연, 모: 조혜빈)

하루가 자신의 이름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부모 된 저희에게도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온유 (부: 이윤재, 모: 예정현)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 건강하게 자라며 마음껏 뛰놀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아이, 주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 해주시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김희로 (부: 김경민, 모: 신윤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따뜻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부모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귀한 생명체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저희 부모에게 허락하소서.

이하은 (부: 이형욱, 모: 박혜민)

하은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박준서 (부: 박정호, 모: 박보근)

주님, 우리 아이의 첫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황인성 (부: 황연준, 모: 신은진)

인성이가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아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함즐함울 500호 특집
<함즐함울> 퀴즈

함즐함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함즐함울> 500호 특집을 기념해 <함즐함울>에 대한 퀴즈를 냅니다. 정답을 <함즐함울>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신 선착순 50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함즐함울> 창간호는 몇 년도에 발행되었나요?
2. 지금까지 발행된 <함즐함울>에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3. 초기 함즐함울의 발행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4. 1면에 있는 창간호 표지에 현재와 다르게 표기 (오타, 띄어쓰기 등)된 것은 무엇인가요?
5. 십자말풀이는 몇 호부터 시작되었나요?
6. <함즐함울>의 발행인은 누구인가요?

어버이주일

5월 11일 어버이 주일에서 1층 로비에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여 1가정에 1개씩 드렸습니다. 선물을 드리며 “주님,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세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은 여생 가운데 행함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꿈과 비전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어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며 건강하시어서 내년에 또 뵙기를 소망했습니다.

봉사부



2025년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공고

선거일시

▶ 2차선거 : 2025. 5. 18(주일) 08:00 - 15:00

투표장소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진행 예정
*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 요청.

투표권자

▶ 주님의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2025년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일(2025년 1월 12일 기준)

선출인원

▶ 장로 10인, 권사 12인

선출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지의 2/3 이상 득표자
▶ 권사 - 총 유효 투표지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선거결과 발표

▶ 2차선거 결과 : 홈페이지 공지 및 2025.5.21(수) 수요예배 후

투표방식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진행 예정.
• 2차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자투표 사이트의 주소가 전송되며, 스마트폰(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하여 투표.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아름다운 성도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함즐함울에 귀한 사역을 남겨주세요

| 2025 하반기 |

발행계획

7/20, 8/10, 8/31, 9/21, 10/19, 11/9, 12/7, 12/28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내용

- 유유허정 여름사역
- 양육클래스/세움학당 소개 및 후기
- 거저씨인도자수련회
- 추수감사절/성탄절
- 종교개혁기념
- 목사안수, 항존직임직, 세례입교 소감
- LAMS 후기

제출방법

발행 3주전 협의, 일주일 전까지 메일로 제출
(pclhamletter@naver.com)

참고사항

A4 2장(10포인트 줄간 160)이 함즐함울 1면 분량
사진은 최소 500k 이상

문의.상담 | 홍보출판부 부장 어진원 안수집사(010-2951-4487)



교회일정

- 5/18(주일) : 교사, 청년 주일
5/25(주일) : 가정 주일
6/4(수) : 8교구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알립니다

1. 2025년 공동의회 항존직(2차)
일시 : 5/18(주일) 08:00 ~ 15:00
방법 :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전자투표
또는 지하(다목적홀)에서 전자투표
선출인원 : 장로(10명), 권사(12명)
(안수집사는 1차 선거시 모두 당선)

2. 하나님의 선교 LAMS과정
기간 : 4/16~6/18(매주 수) (5, 6월 첫주 제외)

3. 싹들나무 국내성지순례
일자 : 5/29(목) ~ 31(토)

4. 결혼예비학교 제24기
모집 : 6/1(주일)까지
대상 :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기간 : 6/8(주)~6/22(주) 15:00~18:30(3주간)
회비 : 4만원(커피당)
신청 : 이영원 전도사(010.3954.7208)

5. 전화상담부 특강
일시 : 5/15(목) 10:30
장소 : 제1집회실(5층)
강사 : 최진량 전도사(소망교회 상담부)
주제 : 상담과 상담자의 자기돌봄1
대상 : 상담부원 및 모든 교인
문의 : 김숙연 권사(010.4239.7715)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서정하 장로(010.9554.9715)
3. 주차안내부원
시간 :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499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남윤희 집사(6교구), 정현정 집사(5교구), 진주현 집사(8교구), 김희정 성도(8교구)

십자말풀이 정답 또는 '함즐함울' 기사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즐함울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즐함울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